

월/요/광/장

조기인



흔히 영양소라고 하면 힘을 내는 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 영양소를 내는 영양소들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미네랄, 비타민 등 조절 영양소가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열량 영양소를 섭취하더라도 신진대사가 원활히 진행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 이들의 균형이 깨질 때 영양실조나 성장 장애 또는 고혈압, 당뇨 등 여러 가지 질병을 양게 되기 때문이다.

기업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은 무엇일까? 미연방준비이사회(FRB) 의장을 네 번이나 역임한 앨런 그린스판(Alan Greenspan)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비

기업가 정신을 북돋우는 금융

록 10년 내지 30년의 단기간으로 보면 경기변동을 거둬하면서 부침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비해 언제나 월등한 성장세를 시현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시장경제의 지속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core)은 바로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라고 적시한 바 있다.

또한 애덤 스미스, 케인즈, 마이클 포터 등 경제학계의 거목들도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은 물론, 저명한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는 '변

화를 탐구하고 변화에 대응하며 변화를 기회로 이용하는 기업가 정신만이 한 사회가 다음 사회로 진보해 나갈 수 있는 요소이며, 지금 한국사회에 꼭 필요한 정신'이라고 조언한 바 있다.

이처럼 여러 석학들이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낯선 세계에 도전하여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는 것이 기업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기업에게 있어서 리스크는 수익의 원천이자 존재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서, 불확실한 미래를 기약하며 당장의 위험을 떠안고 나아가는

것은 대단한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하다. 즉, 기업가정신은 기존 생산방식과 경제 질서에 대한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이끄는 원천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요즘과 같은 경기침체기일수록 경제가 정상 궤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이라는 원동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금융회사들이 기업활동을 지원함에 있어서도 단순히 외형과 과거의 실적만을 따져 우량 기업에게만 지원하는

것을 떠나, 도전정신과 추진력을 갖춘 기업을 발굴하여 성장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 경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긴요할 것이다. 이는 탐무드에서 '자녀에게 물고기를 잡았다 주면 한 개 식사를 해결해 주지만,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 평생 식사를 해결해 준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기업가정신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수치로 계량화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기업의 기업가정신이 충만하여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금융회사의 몫이다. 금융회사가 선의의 관리자로서의 책무에 충실하여 우리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기업들을 발굴하고 적절히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작금의 경기침체의 타격을 빠져나가는 절경이 될 것이다.

지난해 부임 이후 고향 같은 파스함으로 감주던 광주를 떠나 서울에서 봄을 맞이하니 화사한 남도의 봄 햇살이 무척 그립다. 우리 남도의 금융이 기업가정신을 북돋아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는 역할에 충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국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백수 360만 시대 '실업대란' 현실화되나

실업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15세 이상 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천623만명으로 고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9년 6월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할 생각이 나 계획이 없는 250만명은 실업률에는 잡히지 않았으나 사실상 백수다. 여기 에다 취업준비자 56만8천 명, '구직 단념자' 16만9천 명도 '백수'로 분류할 수 있다. 경제활동인구 중에도 92만4천 명의 실업자와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 취업 희망자 17만1천 명도 백수에 가깝다. 이들을 합산하면 사실상 백수는 358만4천 명에 달한다.

사실상 백수를 포함하면 실업률은 무려 15%에 달해 국민 7명 중 1명은 자기 일이 없는 실업자다. 최근의 고용상황이 '빙하기'로 불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오죽하면 '이구백'(20대 90%가 백수), '삼초팽'(30대 초반이면 100%가 백수) 등과 같은 신조어

까지 등장했겠는가. 더 큰 문제는 고용 사정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데 있다. 경제가 좋아져야 고용 사정이 나아질 것이지만 국내외 경제는 당분간 더욱 악화될 게 확실하다. 실업 공포가 올해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현실화되고 있는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다간 극심한 사회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고강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인턴 위주의 숫자 채우기 식 임기응변 대책에만 몰두해서는 실업대란을 막을 수 없다.

우선 당장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기존 일자리를 지키는 것도 긴요하다. 물론 가장 근본적인 실업 대책은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다. 그래야 양질의 일자리가 늘고 고용 안정이 보장된다.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실업대란만큼은 막아야 할 것이다.

장애학생 진단평가 일방적 배제 안된다

31일 치러지는 교과학습 진단평가에 장애학생들의 참여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이번 평가는 전국의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학년 초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런데 장애학생들의 참여 여부를 논란을 빚고 있는 이유는 광주시 교육청이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일방적으로 장애학생들을 배제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시 교육청은 최근 일선 초·중학교에 공문을 보내 특수학급은 학교장의 판단에 의해 시험참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시험에 부담을 느끼는 장애학생들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시 교육청의 해명이다. 진단평가를 거부하는 교사들에 대해서 강력대응도 불사하는 교육당국이 장애학생들에겐 관용을 베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교육당국의 방침은 장애학생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것이 우리의 견해다. 상대적으로 성적이 떨어지

는 장애학생들을 배제시켜 좋은 성적을 얻으려는 속셈인 것이다. 장애학생들의 경우 '도달과 미도달' 2단계로 나누는 이번 평가에서 '미도달'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지난 11일 고교생 전국연합평가에서 일부 학교장의 강요로 장애학생들이 시험 대신 체험학습을 떠났다.

시 교육청은 장애학생들의 참여 여부를 학교장 재량에 맡기는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시험참여 여부는 학부모와 본인이 결정해야 한다. 학교장이 장애학생의 의견을 무시한 채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비교육적 처사다. 이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지원해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평가의 취지와도 정면배치된다.

그렇지 않아도 일각에서 학습성취 평가를 두고 학교 간 서열화와 점수경쟁을 부추긴다며 반대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당국은 이번 평가의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 보길 바란다.

無等鼓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식목일(4월 5일)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나무는 꽃이 피거나 새순이 돋기 전에 심어야 뿌리를 잘 내리는데 이상 고온으로 개화기와 발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탓이다.

이 때문에 상당수 지자체들은 수년 전부터 식목 행사를 앞당겨 실시하고 있다. 올해도 광주시는 지난 25일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고, 전남도도 2월 초부터 3월 20일까지 집중적으로 나무를 심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한반도의 식목일 기온은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목포의 최근 30년간 식목일 평균 기온은 8.9도로, 그 이전 30년(1931~1960년)의 평균값인 11도보다 2.1도나 상승했다. 반세기 전의 식목일 기온대는 약 1주일 앞당겨진 3월 29일을 전후해 관측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식목일을 보름쯤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의 식목일은 한반도 기후변화와 생태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 근

거다. 일부 산림 전문가들도 언 땅이 녹고 물소름이 시작되기 전인 3월에 나무를 심어야 생존율이 높아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북한의 식수절도 3월 2일이다.

하지만, 산림청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역사적 유래에 따라 지정된 국가 기념일이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식목일이 4월 5일로 지정된 것은 1946

년. 1493년 성종이 동대문 밖 선농단(先農壇)에서 직접 논을 경작한 날과 1910년 순종이 친경제때 손수 나무를 심은 날이 양력 4월 5일에 해당돼 이 날을 택했다 한다.

이 무렵은 또한 청명·한식과 겹쳐 조상들을 돌아보는 전통문화와 연결된다는 점도 고려할 듯하다.

어쨌든 3월은 나무심기에 최적기다. 생명이 약동하는 새봄, 더 늦기 전에 나무를 한 그루씩 심어보는 것이 어떨까. 편안함에 길들여져 온난화에 일조해 온 지난날에 대한 자성도 할 겸.

/정후식 사회1부장 who@kwangju.co.kr

식목일



법조칼럼

백상렬



"잡아가불든지 맘대로 해부쇼. 뚝.(뽀뽀뽀)" 최근 피해금액만도 2억원이 넘는 사기 사건의 중요 참고인에게 그 출석을 요청하는 전화를 하였다가 그로부터 직접 들은 마지막 말이다.

참고인이라 하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 중 피의자 즉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조사를 받는 사람의 의의 사람으로서 자신이 경험한 사실 등에 관하여 진술을 하는 사람을 말하고, 그 대표적인 경우가 흔히들 얘기하는 목격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사자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그에

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늘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또 가해자로 지목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그러한 경우에 그 경위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참고인이 그에 관한 진술을 거부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

물론 당사자들 진술의 신빙성만으로도 진실을 판단할 수 있는 사건들이 있겠지만 불행히도 대부분의 사건은 우리 사회만큼이나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고, 나름대로의 사연을 갖고 있다.

그런데도 자기의 일이 아니므로 번거롭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 사정을 알

선한 사마리아인 되기

관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경우 혐의 판단의 가장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이 바로 참고인의 진술이다.

그런데 참고인이 그 출석을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불행히도 우리 법은 그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중요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하고 소환조사하지 못함으로써 사건의 실체를 밝히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범죄는 자신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자신은 그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한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어요"라는 보험업계의 광고 문구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흔히들 사고나 재난 등이 자신에게 일어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들,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들을 갖고 살아간다. 그런 마음은 범죄에 있어서도 동일할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절대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이상은 결코 범죄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고, 오히려 늘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기고

김광근



올해부터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다.

올해 근로장려금은 2008년도 부부의 총급여액(연봉)을 합한 금액이 800만 원 미만 경우 총급여액의 15%, 800만 원 이상 1천2백만 원 미만인 경우 120만 원, 1천2백만 원 이상 1천7백만 원 미만인 경우 1천7백만 원에서 부부의 총급여액을 뺀 금액에 24%를 곱한 금액이 지급된다.

너가 증중 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이 없으며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상인 자녀의 경우 부양 자녀에서 제외된다.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란 부 또는 모가 증중 장애인이거나 18세 미만의 미혼모로 부모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다. 내제, 2008년 6월 1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기존시가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보유 주택의 기준시가가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다섯째, 2008년 6월 1일 현재 부부의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 이하여야 한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올해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8년도에 부부 중 1명이라도 급여를 받고 일하는 근로소득자여야 한다. 일용 근로자도 가능하나 개인 사업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과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고용된 경우는 근로소득자로 보지 않는다. 근로소득자라도 2008년 중 3개월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은 사람과 외국인인 제외되거나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경우는 신청 가능하다.

둘째, 2008년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1천7백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부의 총급여액,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이 1천7백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셋째, 18세 미만(1990. 1. 2. 이후 출생)의 자녀를 1명 이상 부양하여야 한다. 자녀에는 양양 자녀도 포함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능력이 없어 손자나 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부양자

다. 재산 합계액은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임차보증금, 예·적금 등 금융자산, 주식·채권 등의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아파트 분양권 등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다. 금융자산과 유가증권은 개인별로 500만 원 이상인 경우만 포함된다.

근로장려금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거나 국제청 근로장려금 홈페이지에 전자 신청해야 한다. 전세 계약서 등 증빙 서류와 함께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국제청 근로장려금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본인의 근로소득 자료, 주택·토지·건축물·승용차 가액 자료,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볼 수 있다. 근로소득 자료와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국제청 고객지원센터(☎1588-0060)나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국번 없이 ☎110)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도 근로장려금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광주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학교 밖 청소년' 품어줄 대안학교 늘리자

우리 주변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이런 아이들은 정규 학교 과정을 포기하거나 적음에 실패해 우리 사회에서 영영 낙오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얼마전 충남도가 학업중단 학생들을 위한 '공립 대안교육센터'라는걸 만들었다는 보도를 접했다. 가사와 부작용 등으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사회로부터 방치된 위기의 청소년들에게 제기의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런 대안교육센터가 우리 전남 광주에도 만들어져야 한다. 해를 거듭할수록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해 학교 밖으로 떠밀리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더더욱 절실하다. 이들은 일단 학교를 떠나면 미야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상처를 제때 치유하지 못하면 정상으로 돌아오기가 어려워지게 마련이다. 그러니 소외된 학생들을 위해 우리도 서둘러 이런 대안교육센터를 만들자.

▲김용권·광주시 북구 문흥동

분실 지갑 돌려준 택시기사 도둑으로 의심해서야

얼마전 남편 택시 내부 청소를 해주려고 하다가 조수석 바닥에 지갑이 떨어져 있어 주여다가 남편에게 주었다. 다행히 주민등록증이 있어 파출소에 갔다주면 될 것 같았다. 그런데 지갑 안에 주민등록증과 명함 말고는 현금은 1000원짜리 한 장도 없었다.

남편은 다음날 지갑을 맡기고 일을 나갔다고 한다. 그런데 저녁에 돌아온 남편은 너무나 풀이 죽어있었고 화도 나 있었다. 지갑을 분실한 사람이 택시운전기사인 남편이라며 그 안에 들어있는 돈을 훔치 배간 뒤 지갑만

주었다고 신고한 게 아니냐는 투로 의심을 하더라는 것이다. 내가 더 기가 막혔다. 그 지갑을 처음 발견한 게 나왔고 그 안에서 아무것도 개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이 텅 비어 있었다는 것을 아는 나왔기 때문이다.

정말 열심히 정직하게 살고, 잃어버린 물건까지 찾아준 사람을 의심하는 세태가 무섭다. 그날 남편은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지갑을 돌려주지 말았지, 아니면 그냥 우체통에 넣고 잊을 것을 그랬다면 후회했다.

▲이금숙·광주시 서구 농성동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